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누가 할까

(요 6:10-15)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경우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는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 후에 오는 위험이며 또 하나는 성공도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 불안정한 지식의 위험성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6:14)

사람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완전하게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지식을 가지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오천 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시 132:15)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자 이 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메시아의 왕권이 수립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권세를 잡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를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가셨던 메시아관의 차이는 다음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가야바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른 보면 예수님께서 긍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4절의 이 말씀의 병행구를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번역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사장이 예수를 해하려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말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왕이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이 따로 없고 메시아를 왕이라고 생각했으니 그 메시아가 바로 너냐는 뜻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도 “네가 말했다”로 영역을 하면 긍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은 회피하는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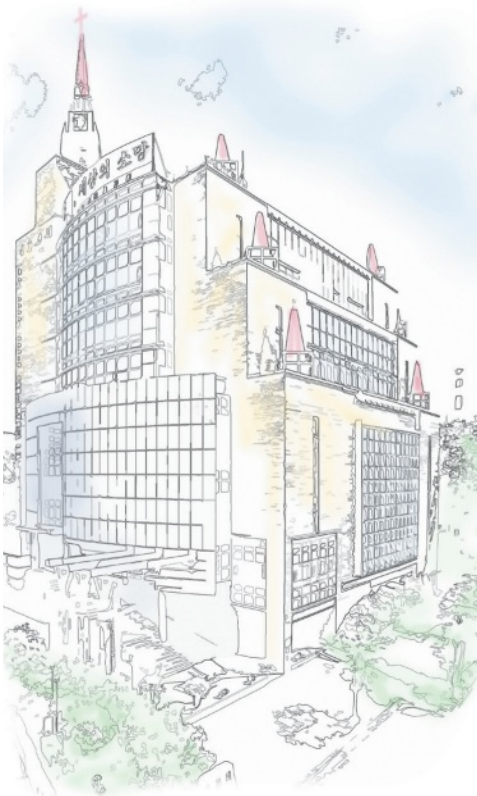
둘째,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그 위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금방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를 않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는 살아서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란 생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중 하나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실 분이신 것을 백성들은 알리가 없었습니다(막 10:45). 이들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니 여기에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물론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 음식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인격이 없는 음식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아는 줄로 알지만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 계속)



오늘부터 다시 주일 대면 예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으로 오늘부터 주일 대면 예배를 다시 시행한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주일 찬양예배에 한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되, 본당 2, 3, 4층 예배실 전 좌석의 10% 내에서만

드린다.

교회학교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비대면으로 드리며, 주중 모임도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모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결산 특별제직회 및 공동의회 소집 향존직 은퇴식·성경통독상 시상

성경통독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 / 예·결산 특별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향존직 은퇴식·장한 어머니상 : 다음 주 찬양예배 시
예·결산 공동의회 : 다음 주 찬양예배 후

지난 해 12월, 코로나19 사태 거리두기 강화로 연기한 교회 행사들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 성경통독자 시상을 진행한다. 수상자는 1독 75명, 2독 13명, 3독 2명, 4독 2명, 5독 1명, 17독 1명, 필사 3명, 총 97명이다.

찬양예배 후 본당 2층 예배실에서 예·결산 특별제직회로 모인다.

또한 다음 주일 1월 31일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인다. 자세한 내용은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날 공동의회에 앞서 예배 중에 향존직(장로·집사·권사) 은퇴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은퇴

식 예행연습과 은퇴자 가족사진 촬영이 오후 4시부터 본당 2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때에 세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를 격려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한 어머니상'도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시상한다. 안타깝게도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어머니에게 시상하는 다자녀를 출산한 장한 어머니에게 시상하는 '장한 어머니상'은 2020년에는 없었으며,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개근할 수 있도록 힘쓴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장한 어머니상'만 시상한다. (4면에 계속)

· 향 존 직 은 퇴 자 ·



조정식 은퇴장로



오광한 은퇴장로



김광옥 은퇴집사



박광서 은퇴집사



박희서 은퇴집사



안재선 은퇴집사



이승우 은퇴집사



이영조 은퇴집사



임선철 은퇴집사



고영숙 은퇴권사



박선지 은퇴권사



박숙 은퇴권사



김남순 은퇴권사



김선이 은퇴권사



김영식 은퇴권사



김인숙2 은퇴권사



나상민 은퇴권사



박영옥 은퇴권사



이영희 은퇴권사



이옥희 은퇴권사



주경자 은퇴권사



최경란 은퇴권사



최현인 은퇴권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주소 / ⑤ 가족합산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추회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 기간 : 1월 10일(주)-12월 26일(주)
-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 결과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인원에 맞게 변동)
- 응모내용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니다. 교회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예배로 인해 인터넷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 응모방법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⑥ 제출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3대가 함께 한 성경 통독 -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박은영 집사 (교구)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2020년 한 해, 제가 몸담고 있는 유·초등부 선생님들 및 학생들과 매일 아침 성격통독 범위를 확인하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기대와 기쁨으로 만나듯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거짓과 미혹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복음으로 힘차게 매일을 승리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눈과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인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를 위협하는 듯했지만 우리 가족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로 아흔이 되신 저의 어머니 양숙란 권사님에게 통독할 수 있는 영과 육의 능력을 허락하

신 하나님, 매일 아침 가족들과 새벽 예배를 마치면 성경 읽기의 본을 보이며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해주는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름을 주신 아들 신영이로 하여금 말씀 통독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학교와 교회에서 귀한 생명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두렵고 막중한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저와 딸을 먼저 무장시키시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통해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세우시며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1년도에도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다시 예배합니다!'를 외치며, 매일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만납니다.



성경통독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

2020년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해 교육계획을 잡으면서 유년부·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새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어린이들에게 말씀이란 성경일 것이며, 성경을 한 해 동안 통독하면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짐이 곧 교회의 새로워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총 1,189장입니다. 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한 해 동안 통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1년을 끈기있게 읽어야 완독할 수 있는 스케줄입니다. 과연 1독을 할 수 있을까?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갖 컨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성경을 아이들이 읽어나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목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큰 상품을 걸었습니다. 다독자에게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쓰라고 애플 타블릿 PC인 "아이패드"

를, 1독자에게는 성경 읽으며 찬양을 들으라고 애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선물로 걸었습니다. 교회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선물하기에 걱정이 되었고 혹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감당 못할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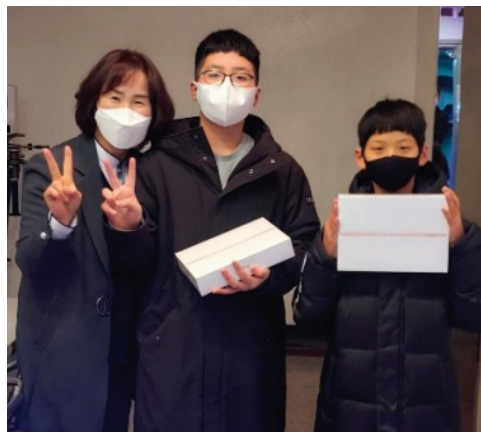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위해 김혜연 초등부 부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총괄 진행을 하였고, 박은영 선생님이 매일 아침 오늘 읽을 성경 범위를 단체 대화방에 올려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지만 월별 성경 읽기표를 가정으로 배송하고 각반 선생님들이 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동참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통독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모든 성경 읽기 스케줄을 마친 결과 총 23명이 참여하였고 2명이 2독, 7명이 1독, 6명이 신약 혹은 구약을 통독하였고,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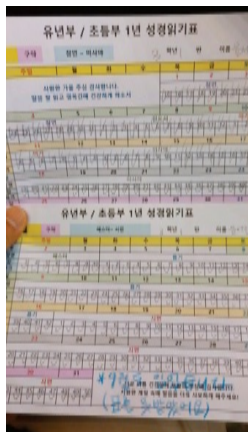
이 완독은 못하였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평균 출석 인원이 5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놀라운 참여율입니다. 아이패드 2대, 에어팟 7대와 참여 학생들을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총 2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였는데 선생님들의 후원으로 반을 마련하고 외부 후원으로 나머지 반을 마련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선물 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고 이를 통해 새로워짐을 느낀 경험이 우리 유년부·초등부 어린이들이 살아가는데 평생의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2021년도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올해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워짐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며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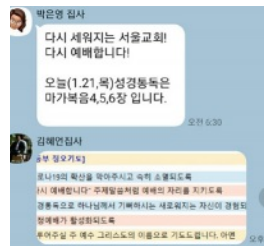
(유년부·초등부 교사 일동)



2020년 성경통독을 2독한 조건우 조연우 어린이



어린이가 성경 읽고 체크한 성경통독표



1년동안 매일 아침 그날 읽을 성경 범위를 유·초등부 교사 단독방에 공지를 올려 성경통독을 독려한 유·초등부 교사들

“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11:18-20)

”

'20결산 및 '21예산 특별제직회

1. 일시 및 장소: 1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
 2. 회원: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3. 안건: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 사업 계획 승인의 건
 4. 결의: 재석 과반수로 한다.
 5.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20결산 및 '21예산 공동의회

1. 일시 및 장소: 1월 31일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
 2. 회원: 본 교회 무후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2021년 1월 이후 새가족으로 등록된 교인(전입교인 포함)은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후 등록교인 자격을 부여하되 등록카드 제출 후 1년간은 공동의회 회원권 을 보류한다.
 3. 안건: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 사업 계획 승인의 건
 4. 결의: 재석 과반수로 한다.
 5.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장한 어머니 상(개근 자녀)

- 영아부 : 한혜선 · 유아부 : 고민정 정신아 한주희 이주영 조현정
- 유치부 : 조현정 구진영 한혜선 · 중등부 : 이현정 김은정 이주영 송명원 손영희 남재은 이수정 노애리
- 유·초등부 : 구진영 김경숙 김민아 김의정 남재은 손영희 신아령 양세정 오재영 이수정 이진영 이진희 · 고등부 : 김은정 이현정 전미경 강남희 손지희 김영현 (총 : 35명)

2020 성경통독자

- 1독 : (1교구)송미령 (2교구)최형열 김찬진 최아영 선혜영 이은희 (3교구) 추석우 박정애 송성태 (4교구) 이영희1 (5교구) 양숙란 김혜연 박은영 김신영 문승순 이관모 김정희 홍혜련 김복희 (6교구) 김숙자 이영희 주경자 김영숙 (8교구) 서문석 이봉선 이한나1 (9교구) 전용순 나기태 안재선 김미자 유묘종 (10교구) 조정옥 김경희 최죽희 김홍두 박미라 (11교구) 이은희 장호림 박정선 이진희 (12교구) 임대중 남재은 조상희 김선희 김예환 서상근 정희순 이건희 나미경 최유현 (13교구) 김지수 김순진 김은희9 주화인 전성희 이성희 김소형 오만옥 박미영 박혜정 (14교구) 석상화 안선희 이영재 (16교구) 임송자 최규초 백도환
- (유·초등부) 임하울 임하람 우정균 한예승 김하진 이윤의 윤서진 김하윤 김종혁
- 2독 : (4교구) 유명석 (5교구) 심화숙 조현정 홍혜란 (9교구) 이영자 이강전 (10교구) 박광훈 (11교구) 박동희 (12교구) 김민아 최근자 (13교구) 조경숙 (유·초등부) 조건우 조연우
- 3독 : (5교구) 박은영1 (10교구) 김예지
- 4독 : (5교구) 황선희 (8교구) 강애자
- 5독 : (1교구) 이옥수
- 17독 : (11교구) 김석봉
- 필사 : (4교구) 김영희 (12교구) 이정연
- 타이핑+필사 : (4교구) 최중희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요한계시록 1~5장· 일반부 본선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10월 31일(주)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월25일	월	출 13-15		민 4-7	
1월26일	화	출 16-19		민 8-12	
1월27일	수	출 20:1-23:9		민 13-16	
1월28일	목	출 23:10-25:40		민 17-22	
1월29일	금	출 26-28		민 23-28	
1월30일	토	출 29-30		민 29-32	
1월31일	주일	출 31-33		민 33-36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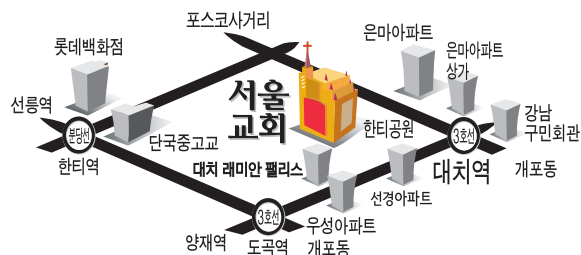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회개에 함당한 열매를 맺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2. 멀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3.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